마음 쏠 과녁 안심 쏠 과녁

(마태복음 9:1~8)

1.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2.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3.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4.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5.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6.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7.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8.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마음 쏠 과녁 안심 쏠 과녁>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마음 쏠 과녁 안심 쏠 과녁'
화살을 쏘듯이 우리의 마음이 쏴야 할 과녁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에 대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심을 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마태복음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그들이 가졌던 믿음의 내용입니다. 본문에서는 몸이 마비되어 움직이지 못하게 된 중풍병자와 네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들것에 실어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광경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 나타난 장면에 집중하며 마태의 의도를 충실하게 이해해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으로 나온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곧바로 죄 사함을 선언하십니다. 2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하셨는데 이 한 구절이 참 깊고 오묘합니다.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선언하신 이유는 바로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가졌던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믿음은 열심이나

간절함 혹은 친구들의 이웃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서 열정이나 간절함을 보신 것이었다면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곧바로 6절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믿음의 내용에 대해 주석학자들의 주장을 살펴보았습니다. 학자들은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당시의 불치병으로 여기던 중풍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음을 확신하였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신 믿음이 정말로 이런 것이었을까요? 이들이 단순히 예수님이 중풍병을 고치실 사랑과 능력이 있다고 믿었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는 안심하라고 말씀하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안심하라'고 번역된 헬라어를 보면 '무서워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떠한 이유로 인해 무서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었고 그렇기에 예수님은 안심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불치병을 고치실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께로 나가면 병이 나으리라는 믿음을 가졌던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신 믿음의 내용은 단순히 치유의 확신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보신 그들의 믿음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안심하라'는 말에는 '무서워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중풍병자가 우선적으로 문제 삼았던 것은 육체의 병으로 인한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중풍병에 걸려서 몸이 마비되는 육체적 고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시급한 문제는 심리적인 문제였습니다. 중풍병자가 무서움과 불안을 느끼고 있었기에 예수님께서는 우선 안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풍병에 걸려 마비증상이 온 육체의 고통조차 넘어서는 마음의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의 죄 사함의 선언으로부터 유추할 수 있습니다. 중풍병자는 "내가 불치병에 걸려서 육체가 마비되는 고통을 겪게 된 데는 이유가 있다. 도대체 나의 인격에 얼마나 큰 문제가 있기에 이런 병이 걸렸을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육체의 고통에 앞서 마음에서 우선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불치의 병을 불러오게 된 자신의 인격적 결함 즉 마음의 중풍병을 예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을 무서워했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서 이스라엘 경내로 돌아오신 때였습니다. 따라서 중풍병자와 네 친구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써 선민의식을 가진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민의식은 예수님 앞에서 바른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중풍병자가 육체의 고통보다도 우선시

한 마음의 두려움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격을 문제시 한 것이 죄 사함의 근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먼저 인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라는 사람은 몸을 입고 있지만 그러나 몸 자체가 나는 아닙니다. 굳이 말하자면 '나'라는 인격이 몸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풍병자는 이러한 관점에서 몸보다 인격을 우선적인 문제로 삼았던 것입니다.
인격은 곧 마음에서 '나'라는 의식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라는 의식은 관계하는 대상을 통해 생겨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라는 의식을 갖기 위해서는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남편이라는 의식을 갖기 위해서는 아내가 있어야만 합니다. 선생님이라면 선생님으로써의 의식을 갖기 위해서 제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듯 사람은 다양한 관계를 통해서 '나'라는 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중풍병자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자아의식을 느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대하실 때에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부르실 때에 쓰는 자애로운 호칭으로써 '작은 자야'라고 부르십니다. 중풍병자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인격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보잘 것 없음을 느끼며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는 안심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안심하라는 말과 두려움을 연결시켜 봅니다.
중풍병자에게 아내가 있었다면 아내 앞에서는 남편이었을 것입니다. 또 자녀가 있었다면 아버지였을 것입니다. 직업이 농부였다면 농부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관계에서 생겨난 '나'라는 의식이 예수님 앞에서는 쓸모가 없었습니다. 기존의 모든 다양한 관계에서 생겨난 '나'라는 의식은 구원에 대해 어떠한 확신도 줄 수 없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안심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을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는 믿음이란 기존의 모든 관계에서 안심을 얻을 수 없음을 알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안심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세상과의 관계에서 나라는 의식을 가지며 안심을 얻고자 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남편이나 아내라는 자아의식을 가져 안심하고자 하고, 자녀와의 관계에서 부모라는 자아의식을 가져 안심하고자 합니다. 또 직장 관계에서 직장인이라는 자아의식을 가지고 안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으로는 예수님께 나올 수도 없으며 나온다고 해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세상과의 관계에서 생겨난 자아의식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질 때에 비로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세상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안식도 찾을 수 없음을 깨닫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자아의식을 찾음으로써 안식과 평안을 찾고자 함이 믿음입니다. 중풍병자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이러한 마음에 네 명의 친구들이 동조하였습니다. 중풍병의 치유가 우선적 과제가 아니

라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우선적 과제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육체의 병보다 마음의 병을 우선적으로 본 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셨던 믿음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죄와의 관계성이 생겨납니다. 안심하라고 하신 예수님께서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죄란 하마르티아(ἁμαρτία)로써 과녁에서 빗나갔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본성상 '너'라는 위치에 있는 대상과의 관계를 통해 자아의식을 갖게 됩니다. '너'라는 존재에 대해 마음을 보내는 것을 활로 화살을 쏘는 것에 비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화살을 쏘듯이 마음을 보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내와의 관계에서 기쁨과 만족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만족과 기쁨을 안심이라는 말로 대체하여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너'라는 관계에 아내를 들여놓음으로써 안심의 상태를 누리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결코 안심은 생기지 않습니다. 아내라는 과녁은 안심을 줄 수 없는 잘못된 과녁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너'라는 자리에 자녀의 형통을 들여놓고 부모로써 안심의 상태를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잘못된 과녁이기 때문에 안심은 생기지 않습니다.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안심을 얻고자 합니다. 너의 자리에 돈을 대입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안심이 주어질 수 없는 과녁입니다. 철학에서는 나, 너, 그것 등으로 관계의 위치를 정의하고는 합니다만 '나'라는 인격에서 대해서는 어떠한 대상이든 너의 위치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계를 맺는 대상에게 마음을 보내는 이유는 안심 즉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문제는 과녁 삼은 대상이 본래 안심을 줄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빗나간 과녁에 마음을 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근본적인 기쁨과 만족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쏠 때에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자아의식을 가질 때에만 우리의 마음은 안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의 위치에 있는 대상으로써 모시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양입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녀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라는 의식이 관계하는 너의 위치에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안심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마음의 화살이 빗나가게 되면 삶에는 중풍병과 같은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부부관계가 원활하지 못하고 마비증세라도 일어난 것처럼 뻣뻣하기 그지없다면 마음을 서로에게 쏘는 죄 때문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마음을 쏘아서 안심하려 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마음을 쏘아서 안심하려 하는 동안에는 결코 안심은 주어질 수 없습니다.
한편 6절을 보면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안심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마음을 쏘아 보내고자 하여도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만질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아

들 예수님을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을 쏘면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아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까지 가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적중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과녁 삼을 수 있고 하나님께 마음을 적중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의 자리에 모시고 '나'라는 의식을 가질 때에 비로소 안심은 찾아오게 됩니다.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을 쏘아야 할 정확한 과녁이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으시기에 과녁으로 삼을 수 없어서 세상을 향하는 동안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보이고 들리고 만질 수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께 마음을 쏠 때에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문 7~8절을 보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너의 자리에 모시고 '나'라는 의식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자녀로써 목자의 양으로써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로써 오직 '나'라는 의식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지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에는 안심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께 마음을 쏘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배우자 자녀 직장 등을 과녁 삼았던 우리의 마음을 끊어지게 합니다. 세상을 과녁 삼아 마음을 쏘아서 안심을 얻으려고 했던 과녁들을 끊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세상에 마음을 쏘며 안심을 찾으려고 했고 그로인해 죄악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마음을 쏘아서 하나님의 안심 즉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된 후로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으로부터 생겨난 안심을 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난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에서 남편이고 아내고 돈에 대해 마음을 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십자가 생활화를 하게 되어 이제는 돈이 아닌 하나님께 마음을 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의 죽음으로 인정하게 되자 돈을 향하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하나님을 과녁 삼아 날아간 마음은 평강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아내는 십자가 생활화를 하지 못하여 이전과 같이 돈에 마음을 보내며 불안해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에는 이전과는 다르게 안심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안심은 돈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무책임한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본문 8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볼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는 곧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하신바와 같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자 돈에 대해 두려움과 불안을 가진 아내일지라도 남편을 대할 때에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돈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무책임한 것도 아니고 무감각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안심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 안심은 아내에게도 전달되게 됩니다.

이전에는 돈이 없어서 생기는 불안감을 아내를 통해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아내를 타박하기도 하고 의존하기도 했습니다. 아내에게 마음을 쏘는 동안 죄가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마음을 예수님께 쏘게 되자 하나님과 관계함을 통해 평강을 얻게 되었고 이제 아내와 돈 문제에 대해서는 하늘 평강으로 생겨난 안심을 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불안하고 걱정해야만 하는데 안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평강에서 비롯된 안심은 무책임도 아니고 무관심도 아닙니다.

부모가 십자가 생활화를 하게 되면 자녀는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부모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자녀를 붙잡고 씨름하는 것을 부모의 의무로 알았습니다. 자녀에게 마음을 쏘는 것이 죄인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랬기에 일류 대학 가야한다, 좋은 직장 가야한다는 말 이외는 해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결코 부모에게 안심을 줄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안심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 안심할 수 있을 때에 또한 자녀에게도 안심을 전달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풍랑과 씨름하던 제자들의 모습과 오늘 본문에 나타난 중풍병자의 모습은 대조적입니다. 중풍병자는 병이라는 풍랑을 붙잡고 씨름하지 않고 풍랑이 불게 된 원인이 자신의 인격에 있음을 보았습니다. 인격은 ‘나’라는 의식이 살아있는 마음입니다. 그 나는 언제나 너에 의해서 채워지게 됩니다. 중풍병자는 그동안 상대하고 관계해온 것에 문제가 있음을 깨닫고 예수님께로 나왔던 것입니다.

삶에서 문제가 생길 때에 우리는 항상 나의 인격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부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돈 문제 등의 모든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관계하는 너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것이 문제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향해 마음을 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정확히 날아가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안심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이 안심을 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조건을 확보함으로 생겨나는 안심과는 완전히 다른 참된 안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쏠 과녁은 예수님뿐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그럴 때에 너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게 되고 '나'라는 의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부터의 삶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안심을 쏘는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렁이 같은 자들이 창조주이시며 심판자이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너의 자리에 모시고 나라는 의식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이 땅에 예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 은혜를 따라 예수님께 마음을 쏨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정확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나라는 의식을 갖고 절대 안심 속에 살면서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과 모든 대상들을 향해 안심을 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